국민 79% '소방관 국가직' 전환 찬성

청원·여론 조사 지지 압도… 신속한 법안 통과 촉구
시·도 재정여건 상관 없이 균등한 서비스 제공해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방치되면서 정부의 오는 10월 시범시행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가직 전환 지지 79%가 찬성="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고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복지 환경 속에서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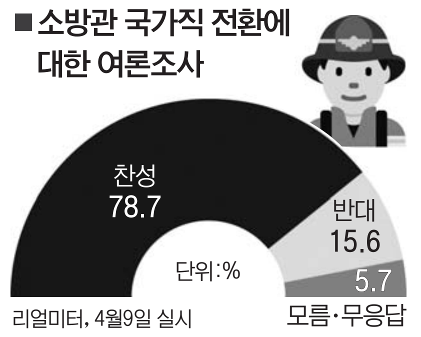
강원도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다. 이 청원에는 38만769 명이 동참했다. 지난달 9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소방관 국가직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 자의 78.7%가 찬성, 정책 관련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41명 중 504명이 응답해 5.2% 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 전화면접 (10%)·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다.

◇국가직 전환 왜 필요한가=시·도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 투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난과 국민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필요한 법정 인원이 4132명이지만 정원은 2800명 정도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10명 기준에 9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방관 국가직화와 함께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확충해 열악한 지역의 인력을 보 강할 계획이다.



◇소방관 국가직화의 쟁점은 무엇인가=소방관 국가직화는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과 지휘·통솔권은 현재처럼 유지하는 '교원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명시하고, 임용권과 지휘·통솔권도 국가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현장을 잘 아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자원을 동원해 발빠르게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재난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끌어올리는 한편 국가재난 발생시에는 전체 소방력을 신속히 동원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와 결부해 소방관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국가직인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에서, 소방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자치분권의 가치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찰은 치안 유지와 함께 범죄를 수사하는 권력기관이고, 소방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 급 활동을 하는 재난대응기관이라고 설명, 기관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것 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안이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칫 20 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달 국민청 원 답변을 통해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 가직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빨리 통 과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형호 기자 khh@

"안중근 의사, 기독교 묘지에 매장"

국가기록원, 러시아신문 보도 의거 관련 기사 24건 공개

안중근 의사가 순국 후 교도소 인근 지역의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고 보도한 러시아 신문기사가 발굴·공개됐다. 그동안 중국 뤼순(旅順) 감옥 묘지 등으로 추정됐던 안 의사 유해 매장 장소에 대해 '기독교 묘지'라고 언급한 자료가 처음 나오면서 향후 유해 발굴 작업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 일간신문들이 보도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관련 기사 24건을 발굴해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사들은 하얼빈 의거 다음 날인 1909년 10월27일부터 1910년 4월 21일까지 보도된 것으로 안 의사의 의거와 체포, 재판과정, 사형집행, 매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신문기사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안 의사의 사형집행 과정과 유해가 묻힌 곳을 언급한 '우수리스카야 아크라이나'지의 1910년 4월 21일자 보도다. 이 신문은 해외소식란에서 "아사히 신문의 특파원에 따르면 안(안중근 의사)은 예정된 시간에 사형장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는 사촌 형이 보낸 흰색 명주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약간 창백했으나 자신의 운명에 완전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형 집행 후 유해가 옮겨진 과정에 대해서는 "(안중근의 유해는) 관에 넣어져 감옥의 작은 예배당으로 옮겨졌다. 암살에 가담한 3명의 동료에게 안과 이별하는 것이 허락됐다. 이후 관은 지역 기독교 묘지로 옮겨졌다"고 적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뤼순감옥으로 압송돼 1910년 3월 26일 그곳에서 사형됐다. 일본 외무성이 소장한 사형보고서와 일본·중국 매체 보도는 안 의사 유해가 감옥묘지에 매장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 파견된 일본 아사히 신문 특파원을 인용해 '기독교 묘지'라고 보도한 내용이 새로 발굴되면서 매장 후보지역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형국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장은 "당시 아사히신문 특파원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돼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같은 시기 일본 내 아사히신문 보도는 안 의사 매장장소를 '감옥묘지'라고 보도했는데 러시아 신문과의 차이가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묘지에 안 의사가 묻힌 것인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준공
창업·세계시장 진출 등 맞춤지원

에너지 분야 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 28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맞춤형 기업 지원 활동에 나섰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지난 2017년 3월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착공했었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고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가 출연한 에너지기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소속기관으로 설립됐고,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에너지기업의 창업과 육성,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등 창업에서 세계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 이미 에너지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 창업, 교육,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오픈랩(개방형 혁신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남도는 오는 2022년 한전공대가 개교하면 산·학·연 소통 창구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운데), 김종갑 한전사장(왼쪽 다섯 번째), 강인규 나주시장(왼쪽 세 번째)이 28일 오전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지정 ·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본격화

道-市-한전 협약식… 공공연구·창업지원 등 협력키로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일대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갑 한전 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한전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과 지자체 간 협약을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사업비 20%와 시설투자비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 등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창업 지원, 특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개선,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특구 개발 및 관리 사항 등에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는 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조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일대를 연구개발특구로 조성, 에너지밸리 내 입주기업이나 관련 기관들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등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특구와 같은 대규모가 아닌, 비교적 적은 면적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 핵심기관과 기업을 모아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혁신도시 일대 2㎢ 이내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양파 1만t 폐기… 과잉생산·수급대책 마련해야

이상기온이 없는 날씨에 양파 수확량이 크게 늘면서 시장 가격 하락을 우려한 전남도가 1만t에 이르는 양파를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과잉 생산 농산물 시장 격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올해 양파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15만1000t 과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중만생종 1만t(163ha)를 신속 시장 격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 자체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겨울배추 5만9000t(655ha), 겨울대파 4872t(466ha), 양파 2만9000t(223ha) 등 무려 9만2872t을 폐기하고, 이에 대해 총 181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2019년산 양파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생육기 기상 호조로 생산 단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가격은 장기간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양파의 시중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수확기 이전 3만t 이상 물량을 조속히 시장 격리하고, 1만8000t 수준의 수매 비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 물량은 과잉 생산 예상량의 25% 수준에 불과해 재배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추가 대책을 요구해왔다. 전남도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지난 21일 도 주관으로 주산지 시·군, 농협, 농업인단체와 긴급회의를 열어 1만t 시장 격리를 결정하고,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6월 초까지 양파 시장 격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주산지 시·군에서도 생산량 등을 감안해 자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도 국산 양파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임 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992㎡(300P), 지분 매매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H.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즙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음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접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감정가 50%.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대지 17518㎡ 주택 2 감정 21억1600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음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광산구 장수동 답 자연녹지 마을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답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감정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접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접 매 4억3천
상 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접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펜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올리모델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큼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1-2회, PM 7시~11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06.03.(월) ~06.19.(수)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06.03.(월) ~06.20.(목)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 형 일 시	2019.07.03.(수) 09: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 격 자 발 표	2019.07.19.(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외식산업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